

소련에서 관료는 지배계급인가?

○ ○

토니 클리프는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자처하지만, 마르크스가 심혈을 기울여 정립한 사적 유물론의 원칙과 자신은 무관한 듯이 행동한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정치적 생활이 아니라 시민적 생활, 시민적 끈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본적 요소이며,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역사의 진정한 무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핵심으로서 경제적 생산관계를 들고 있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역사의 참된 원동력임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생산관계라는 개념은 과학적 엄밀성을 획득하였는데,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되며,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이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하고 고용되어 임금 노동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은 생산수단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ABC에 해당하는 것인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기초적인 점을 무시하고 소련의 관료를 계급으로 규정하는 '사소한' 오류를 범하고 이러한 오류에 기초하여 소련을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간 것이다.

토니 클리프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관료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이었는가를 따지기만 하면 된다. 소련에서 국유 기업의 최고 책임자인 공장장 혹은 경영자는 초기 단계를 제외하면 국가에 의해 지명되고 공장의 소비에트에서 승인을 거쳐 임명되었다. 물론 공장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공장장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와 공장장이 공장을 소유했는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자본주의 기업에서도 공장장이나 경영자를 운영하는 많은 경영자 혹은 관리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경영 전문가일 따름이며, 그들은 공장과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본가에 의해 조정되고 움직여지는 존재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업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경영자는 언제든지 소유자인 자본가에 의해 해고되고, 교체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생산관계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생산에 관여하는가를 넘어서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가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건적인 것은 전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토니 클리프는 이러한 소유의 문제에 대해 궤변적인 접근을 늘어놓는다. 소련에서 국유 기업의 소유자는 국가이지만, 관료가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관료가 지배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토니 클리프는 소련이라는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소련이 부르주아 국가라는 것을 전제하여, 관료들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국가를 '소유'하려면, 그 국가는 이미 부르주아 국가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증명해야 할 사항을 증명의 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논리학상의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니 클리프는 관료들이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생산관계 차원에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료층이 생산수단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문제인데, 사실 자체가 관료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토니 클리프는 관료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식들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연줄'을 물려준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또한 법적인 소유 문제가 관료들의 실질적인 소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법의 변화는 실제적인 생산관계의 변화보다 지체되는 성질 때문이라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변화가 경제적인 변화보다 지체되더라도, 소유 문제가 변화되기 전까지 관료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관리자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관료는 계급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급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여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해 의문이 느껴진다면, 이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문제이다.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토니 클리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는 자본주의 국가의 해당 기업에 대한 부르주아적 소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 조직의 기업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소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는 국가 조직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전 인민의 소유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계급만의 배타적 소유도 아니며, 농민, 반(半)프롤레타리아 등 인민 전체의 공동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 전 인민 소유는 소멸 과정에 있는 소유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국유 기업은 투자자금, 임금기금 등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심지어 적자기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국가는 적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 그 기업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이 이윤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국유 기업은 그것이 전 인민 소유이기 때문에, 그 1차적 과제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민의 수요와 인민의 복지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의 의미인데, 토니 클리프는 관료층을 '계급'이라고 규정하는 '사소한' 오류를 범한 결과,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여 소련을 타도해야 할 적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그리하여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토니 클리프가 관료를 '계급'으로 규정하는 '비약'을 했던 것은 사실 트로츠키의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심화시킨 것이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분파 투쟁을 감행할 당시, 관료주의 문제를 주요하게 들고나왔고,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사회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관료주의 문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해결 방향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관료주의에 대해 그것의 기원과 성격, 해결 방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정치혁명'을 통해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관료주의에 대한 레닌의 접근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레닌은 트로츠키의 접근에 반대하여 "관료주의의 해악을 극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파악했고 심지어 "반관료주의 강령을 채택함으로써 하룻밤에 관료주의적 관행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멋진 말을 좋아하는 사기꾼일 뿐이다"라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레닌의 입장은 관료주의에 대해 트로츠키와는 전혀 다른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레닌은 관료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이 높아져서 인민 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접근한 데 반해, 트로츠키는 관료주의를 '정치혁명'의 방식으로 타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 보아 트로츠키의 방식이 레닌의 방식보다 근본적인 것 같지만, 1921년 당시 사회주의 건설을 막 시작하던 소련의 현실에서 트로츠키의 방식은 일대 혼란을 가져올 뿐, 관료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관료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료에 대한 통제와 제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관료주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대중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의 고양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1930년대 스탈린의 관료주의자들에 대한 숙청과 같이 대중들의 비판을 기초로 관료주의자들을 걸러 내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관료주의의 극복은 단기간의 해결 과정이 될 수 없고 국가 소멸의 전망을 구체화해 가는 가운데,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토니 클리프가 소련의 관료를 계급으로 규정한 것은 트로츠키의 관료주의에 대한 좌편향적 오류를 확대, 심화시킨 것이었다. 트로츠키가 관료주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반관료주의를 내세워 실제로는 분파 투쟁을 수행했다면, 토니 클리프는 소련의 관료를 지배계급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초로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여, 냉전을 개시하던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다.